Ⅰ. 머 리 말

○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IMF관리체제로의 돌입을 계기로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음.

- 국제기준(global standards)에 맞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선진화시켜 가고 있으며, 상품과 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
- 과거와 같은 정부의 호송선단식 행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체제로 진전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경영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.

○ 과거를 돌이켜 볼 때, 국내 생명보험회사들간에 경영전략상의 큰 차이가 없었음.

- '87 '88년에 걸쳐 일시에 설립된 신설보험회사들은 수십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존사의 사업형태를 답습함으로써 신설사로서의 특성을 살리는데 실패하였음.
- 즉, 무리한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으로 인해 사업비부담과 저효율이 누적됨으로써 결국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회사가 많음.
- 현재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예상되고 있어 생보산업 구조변화를 예상케 해주고 있음.
- 따라서 신설사 뿐만 아니라 전통있는 기존사들도 새로운 경쟁환경에 걸맞는 독자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.

○ 이 보고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
-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소주제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,
- IMF구제금융체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규칙이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.
-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화, 업무제휴 및 판매채널의 개선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함.